

아이들 작은 나눔 '행복 바이러스' 퍼뜨린다

생일파티 비용 모아...창업동아리 판매 수익금으로...

각박한 세태 속 청소년·유치원생까지 기부행렬 동참

“기부의 계절”인 연말연시에도 주변을 둘러볼 여력이 예년같지 않아 시민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불황과 절망, 갈등에 발목 잡히지 않고 각박한 세태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들의 작은 나눔 움직임이 새해 사회 곳곳에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

김민정(16·일신중 3년)양과 김성주(8·일동초교 1년)군은 생일 때마다 생일 파티 비용을 모아 꾸준한 ‘나눔 바이러스’를 퍼트려온 남매다.

이들 학생들은 최근 광주시 북구 일곡동주민센터를 방문, 돼지 저금통에 모아 놓은 11만4940원을 좋은 곳에 써달라며 전달했다. 이들의 기부는 올해로 8년째다.

김양은 8살 때부터 자신의 생일인 12월 20일 자신의 저금통을 주민센터에 전달해 왔다. 김양은 “엄마 아빠 없는 친구들은 생일을 챙겨줄 사람이 없는데 그 친구들도 생일파티하면 좋겠다”면서 부모님께 기부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동생도 8살이 되던 지난해 12월 누나의 나눔 운동에 동참했다. 부모님 심부름을 하고 받은 잔돈을 차곡차곡 돼지 저금통에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맛(?)이 있다”며 웃었다.

민정 양은 “어릴 때 맛보려고 뽕은 말 한 마디가 연말이면 가족이 함께하는 연례행사 됐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동생과 함께 봉사활동도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 뿐 아니다. 광주시 남구 일산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최근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 지폐와 100원, 500원짜리 동전 등 34만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수십여 개를 전달했다.

광주시 광산구 ‘라파엘 어린이집’ 원생 27명도 저금통을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왔다. 부모님께 받은 10원, 500원짜리 등 14만 원을 들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세요”라며 훈훈함을 전했다.

문우초교 창업동아리 학생들도 비즈쿨 페스티벌과 문우경제 페스티벌에서 얻은 수익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

달했다. ‘비즈쿨 운영학교’로 선정된 문우초교는 천연비누·넙킨한지공예·테라리움 등 학생들이 만든 창업동아리에서 만든 천연비누와 넙킨 판매 수익금 125만 9000원을 전달했다.

심의섭(18·석산고 1년)군도 최근 광주시 남구청을 찾아 “또래 아픈 친구들과 어린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을 선뜻 내놓았다. 어릴 적 받은 세뱃돈과 군 것질 하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통장에 꼬박꼬박 모아 놓은 돈이었다.

2년 뒤 대학에 입학하면 갖고 싶었던 옷, 노트북 등을 사겠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모아놓은 것이라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심군은 “수업을 듣다 ‘이웃돕기 성금이 예전같지 않다’는 선생님 말씀을 흘려 넘기지 못했다”면서 “유난히 아픈 소식이 많았던 한해의 끝자락에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각박한 세태를 반영하듯 기부금액이 예년보다 대폭 줄어들어 올 해는 목표 금액 34억원을 채울 수 있을 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어린이, 청소년들의 소액 기부가 곳곳에서 이어져 우리 사회에 희망이 되는 것 같다. 어린이들 뒤를 이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행렬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



코레일 창사 10돌 잔치 코레일 공사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3일 오후 광주역에서 코레일 광주·전남·전북본부 직원과 가족, 고객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차놀이 플래시몹 행사가 열리고 있다. <코레일 광주본부 제공>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달뜨기 17:53
해질 17:34 달지기 07:14

저녁엔 겨울비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부터 차차흐려져 오후늦게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2/12	보성	차차흐려져	-3/9	
목포	차차흐려져	2/13	순천	차차흐려져	2/11
여수	차차흐려져	4/10	영광	차차흐려져	-1/11
완도	차차흐려져	-1/12	진도	차차흐려져	1/12
나주	차차흐려져	2/12	전주	차차흐려져	0/11
구례	차차흐려져	-2/10	군산	차차흐려져	0/10
강진	차차흐려져	-2/12	남원	차차흐려져	-3/9
해남	차차흐려져	-2/12	홍산도	차차흐려져	5/12
장성	차차흐려져	-2/11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70
빨래	7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해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남동~남	남동~남	0.5	남~남서	0.5~1.5	남~남서
남동~남	남동~남	0.5~1.0	남~남서	1.0~2.0	남~남서
남서~서	남서~서	0.5	남~남서	0.5~1.5	남~남서
남서~서	남서~서	0.5~1.0	남~남서	1.0~2.0	남~남서
남서~서	남서~서	0.5~1.5	남~남서	1.0~2.0	남~남서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1:53	07:17
	14:40	19:56
여수	밀물	썰물
	09:26	02:53
	21:30	15:28

◇주간 날씨

6(화)	7(수)	8(목)	9(금)	10(토)	11(일)	12(월)
☁	☁	☀	☀	☀	☀	☀
6/7	-3/3	-3/4	-3/5	-2/5	-2/7	-2/7

당분간 포근한 날씨

최근 한파와 폭설이 잦았던 광주·전남은 겨울비와 함께 당분간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5일 광주·전남지역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서해안 지역에 비가 시작돼 점차 전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4일 예보했다.

4도, 낮 최고기온은 9도~13도 분포로 이는 평년보다 5~6도가량 높은 것이다. 예상강수량은 5~30mm.

소한(小寒)인 6일은 새벽까지 내리던 비가 그친 뒤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면서 한결 따뜻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도~8도, 낮 최고기온은 4도~9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머무르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2차 사고 방지 수신호 나선 60대 숨겨

무면허 운전 차량에 치어

도로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사고가 난 차량을 발견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신호에 나섰다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숨졌다.

지난 3일 오후 12시50분께 무안군 삼향읍 국도 1호선(목포방면)을 달리던 운모(40)씨가 몰던 K7 승용차에 임모(69)씨가 치었다. 사고 당시 총격으로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떨어지며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임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에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날 임씨는 무안군 삼향읍 J식당에서 약 300m 떨어진 왕복 4차선 도로에

서 도로보수 공사를 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과 충돌한 카니발 차량을 발견,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수신호를 해주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목격자들은 임씨가 카니발 차량과 약 50m 떨어진 지점에 서 있었다고 주장, 운전자 윤씨는 15m 앞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고 지점을 두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던 윤씨가 곡선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기용기자 pboxer@

U대회·도시철도 2호선 감시 강화...교통·주거환경 개선 앞장

광주 시민단체 올해 활동 방향

새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 현안인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광주YMCA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집중한다. 도시형 대안학교인 ‘해밀학교’를 개소, 광주지역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2000여 명에게 동아리지원·청소년 사회참여활동 등 교육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치유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확대 개설, 학교·근린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요소 점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광주YWCA는 노동 시각지대에 놓여 있는 ‘돌봄(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운동을 벌일 계획으로, 설문조사·포럼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불규칙한 노동 시간 및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자치 21의 활동 방향은 주요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 감사와 시민 편의에 초

점이 맞춰졌다. 광주경찰서는 지난해 광주 보급자리주택이 전체의 30%에 불과할 정도로 서민 주거보장이 불투명한 점, 오는 7월 개최를 앞둔 U대회의 효율적 진행 방안 등을 상대로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 구상이다.

참여자치 21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시철도 2호선 추진 등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시 재정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 여부를 감시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역사고증 활동을 펼칠 계획을 세웠다. 광주·화순·해남·목포 등 일제 강점기 역사적 현장을 둘러

본 답사안내서도 출간될 예정이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는 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시 방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중점을 둔 활동 계획을 밝혔다.

5·18 기념재단은 35주년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재판, 수사 기록물 분석을 통한 객관적 역사일지인 ‘5·18 민주화운동 정사(正史)’를 작성, 편찬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기초 작업을 진행중이다.

5·18 기념재단 이기봉(50) 사무처장은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공모전 등을 통해 청년과 시민이 올바른 한국현대사 역사관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희준기자 bhj@



구례군 구례군의회